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외환·금융시장) 엔저에도 불구하고 환율 및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경색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수출) 수출증가율이 5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 하반기 수출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금융시스템 불안정·원자재 부족, 그리고 對중국 수출 부진과 일본·동남아 시장 위축, 미국·EU 시장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것임
- (실업) 5월중 실업률이 6.9%를 기록하는 등 실업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실업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 확보도 여의치 않음

□ 외환·금융시장 동향

- (환율) 엔/달러 환율이 다시 140엔대로 진입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하에서 머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안정은 수입 위축으로 인한 달러 수요 감소,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투기적 달러 수요 감소 등 시장에서의 달러 공급 우위 요인 때문임
- (금리) 콜금리가 14%대까지 떨어졌으며 회사채금리도 16.0%대를 유지하고 있음. CP·CD 금리는 16%대,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는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지표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하반기 콜금리를 12%대까지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과 주요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
 - 즉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은 여전히 경색된 상태에 있음. 이는 시중자금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금융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 (자금순환 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역시 자금이 금융권 안에서만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가계 및 기업 대출 감소: 1/4분기중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규모는 14.5조 원으로 작년 동기 31.6조 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금융권 내부 자금거래 증가: 한은을 포함한 금융권 내부의 자금거래는 22.4조 원으로 작년 동기 9.3조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기업의 금융부채 감소: 1/4분기 기업 금융부채 증가규모는 11.6조 원으로 전년동

- 기의 40.5조 원에 비해 71.4%나 줄어들었음. 이 가운데 간접금융을 통한 조달은 97년 1/4분기 16.7조 원에서 4.5조 원, 직접금융은 16.5조 원에서 9조 원으로 축소
- 해외차입 감소: 무역신용 축소 등으로 2.6조 원 증가에서 7.3조 원 감소로 반전
- 개인의 금융권 차입 감소: 8.2조 원 증가에서 7.3조 원 감소세로 전환

□ 최근 수출 동향 및 문제점

- **(동향)** 6월 20일 현재 수출증가율이 -6.6% 기록, 5월의 -3% 증가율에 이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태임. 자동차는 5월이래 두자리수(-11.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4월 이후 (-)증가율을 보임
- **(수출 부진의 원인)**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 불안정 및 원자재 부족,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예상외로 부진하고 일본 및 동남아 시장 위축,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의 포화상태
 -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권의 자금회수 등으로 인해 IBRD 차관 등 무역금융에 지출하기로 한 자금 53억 달러중 11%인 5.8억 달러만이 집행되고 있음
 - 92년 수교 이후 매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對중국수출이 5월 현재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하반기 수출 부진 지속)** 정부는 수출 목표액을 1,475억 달러에서 1,430억 달러로 축소 조정하였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엔저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300억 달러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업률 계속 증가세

- **(실업률)** 5월중 실업률이 6.9%(계절조정치 7.0%), 실업자 149.2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농번기, 왕성한 산업활동 등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음
 - 전직실업자가 138.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92.7%에 달함(97년의 경우 전직실업자 비중은 43%)
- **(취업률)** 취업자증가율도 큰 폭으로 감소. 5월중 취업자는 작년대비 5.3% 감소

-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은 증가세(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 서비스업은 5.0% 감소, 농림어업은 9.3% 증가)
- 임금근로자는 1,226만 명으로 작년보다 8.1% 감소했음.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어, 실업자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실업 대책 미흡)** 실업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8.3조 원 규모의 실업 재원 조달에 차질이 예상됨. 특히,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목표액 1.6조 원 중 6월말 실적은 3,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
 - 정부는 국채 발행·고용세 징수·호화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10%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국면에서 세수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임
- **(재정적자 확대)** 정부는 98년 4월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규모를 7.8조 원에서 13조 원(GDP의 3%)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IMF가 합의한 통합재정수지는 세수 76.4조 원, 기금수입 25.8조 원, 재정적자 7.8조 원임
 - 경기침체로 76.4조 원의 세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급여 증대를 감안할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임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1,380원대에서 안정세 지속**

미국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이 140엔대를 상회하는 등 불안 양상이 재연된데다 부실은행 퇴출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원화 환율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수출네고자금 유입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원화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6월 30일 현재 1,385.20원 기록
- **주가: 퇴출은행 발표에 따라 하락세**

퇴출은행 발표에 대한 실망감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의 매물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300포인트선이 또다시 무너짐. 향후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우려, 생존은행의 감자 등 지구계획, 제 2금융권 구조조정, 노동계 불안 등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나타낼 전망. 6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298.60포인트 기록

- 금리: 보험세 지속

정부의 금리 하락 의지와 퇴출은행 발표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통화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출은행 발표로 인해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됨.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회사채 수익률은 9일 연속 보험세를 나타냄.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안 요인의 상존에 따라 시중금리는 보험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6월 29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6.00%

- 엔/달러 환율: 달러당 140엔 선을 돌파

미·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엔화 환율은 다시 달러당 140엔 선을 돌파하였음. 그러나 일본은행의 Tankan(短觀) 서베이 결과 제조업 산출이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엔화 약세의 저지 요인으로 작용. 엔화가 달러당 145엔 선을 넘어설 경우 시장개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6월 29일 현재 141.67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년 1/4분기	4월	5월	6월 29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 물 지 표	무역 수지 (동관기준,억불)	-84.5	84.0	123.4	160.7	-	318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6.2	106.9	144.3	188.0	-	359	흑자 지속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	
	물 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6.6	9.0	8.8	8.2	-	8.7	급등 추세	환율 안정 국제원자재가 하락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10.9	17.5	17.5	15.7	-	16.9	완화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2.6	5.7	6.1	7.0	-	6.9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 융 지 표	환 율	₩/\$	1,415.2	1,387.0	1,338.2	1,410.8	1,385.2 (30일)	1,400	하락	월말 수급 개선
		¥/\$	130.57	131.90	132.38	139.22	141.67	134	상승	일본 부실 채권 문제 처리 지연
	금 리 (%)	RP 금리	35.0	24.0	19.14	18.00	14.50	-	보험	금리 안정 의지, 유동성 호조, 구 구조조정 실행감
		회사채 수익률	28.98	18.28	17.70	17.82	16.00	17.0		
		CP 수익률	35.00	22.20	19.00	18.50	16.30	-		
		당좌대출금리	35.01	24.58	23.68	-	-	-		
	종합주가지수	376.31	481.04	421.2	332.03	298.60	550	하락	퇴출은행 발표에 대한 실망감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97.5 (241.5)	355.4 (307.6)	359.1 (314.8)	403.8 (360.5)	510 (400)	증가	경상수지 흑자, 외평채 발행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6월 외환보유고는 15일 기준이며,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dteon@hri.co.kr ☎724-4011)